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2년도 제18차 회의

1. 일 자 2012년 9월 27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승 태 위 원 (의장직무대행)

박 원 식 위 원 (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5. 참 여 자 송 재 정 감 사 장 세 근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5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9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동 보고서는 본문의 경제동향 부분을 축소하는 대신 주요 이슈를 참고자료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서술하였으며, 7월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결정의 배경및 파급효과, 향후 경제전망 및 리스크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확대 기술하였음. 특히 향후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여건 및 방향을 좀 더 명료하게 기술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또한, 통화신용정책협의회가 동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소관 부 서별로 작성한 내용의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해 동 협의회를 3회 개최함과 아울러 통상 1회 개최하던 위원협의회도 2회로 확대하여 금통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내용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1~9월중 통화신용정책 결정의 배경 및 파급효과를 종전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GDP갭률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정책결정 당시 고려하였던 미래지향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정책결정 배경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7월 기준금리 인하의 여수신금리 파급효과, 가계 채무상환 부담축소 기대효과 등을 강조하여 서술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증액,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의사록 공개시기 단축 등 여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내용과 취지 등도 상세히 서술하였음. 아울러, 참고자료를 통해 단기지표금리 개선 논의,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가계부채의 취약성 등 최근의 경제·금융관련 주요 이슈들을 폭넓게 분석·기술하였음.

마지막으로, 경제전망은 조사국이 7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되 이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성장 및 물가의 상·하방리스크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음.

이어서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체제와 관련하여 당초 보고서(안)의 3장 제목인 '국내외 경제여건 및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되, 국내외 여건 관련내용을 보다 축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초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여수신금리 동향과 주요국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본문으로 옮겨 7월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 및 향후 정책운용방향의 배경에 대한 서술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본문 내용 보강 및 참고자료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당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영세 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의사록 공개시기 단축, 적극적인 공개시장조작 수행 등의 내용과 취지, 기대효과 등을 좀 더 보강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외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에 더욱 유의하면서 그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도 나타내었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외환시장의 흐름에 대한 서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단기금리 동향 기술시 COFIX의 변동, 그리고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동 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지속,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이 자본유출입 확대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된 관심사항이 되어온 국내외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CD금리의 경직성 심화 와 단기지표금리 개선 논의,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평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배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유럽지역 국가 채무위기의 진행상황,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가계부채의 취약성 등의 참고자료는 동향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보다 분석적인 내용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그 밖에,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향후 개선방안으로 서술 대 상기간을 보고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보고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좋 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동 보고서를 동향보다는 분석중심의 보고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서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도 다음번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본문 내용에 비해 참고부분의 분량이 다소 많은 데다 본문과 참고의 활자 크기 등이 차이가 나는 등 편집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향후 책자 발간시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9월)(생략)